

인간 통제 벗어난 현대의 기술발전

글 | 손화철 _ 부산대 박사후과정 whachuls@hotmail.com

지난 호에서는 기술(발전)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술발전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보는 태도는 기술발전을 긍정하는 데는 좋을 수도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또 하나의 패배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운명은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무엇인데, 기술이 인간의 것이라면 그 발전 여부는 인간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기술철학자인 자크 엘릴은 현대 기술사회에서는 인간이 기술발전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대기술은 사실상 자율적이 되었다”는 유명한 언명으로 이어졌다. 이 말은 기술 비관론을 대표하는 말이 되어 수많은 비난과 오해를 받아왔다. 그러나 철학자라면, “비관론이 뭐 어때서?”하고 물을 수도 있다. 적어도, 비관적이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는 비과학적인 태도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기술비관론자로 구분되는 몇 사람들의 이론들을 소개하되, 먼저 기술의 자율성 개념을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한다.

엘릴 “현대기술은 사실상 자율적” 주장

엘릴이 기술의 자율성 개념을 통해 하고 싶은 핵심 주장은, 현대인들은 기술이 인간이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정작 기술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들어 기술의 선택이나 확산에 있어서 인간의 선택은 우선권을 갖지 못한다. 더 효율적인 기술이 예외 없이 선택되고, 한 곳에서 성공한 기술은 예외 없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간다. 또 한 가지 기술이 다른 기술과 끊임없이 합쳐져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낸다. 어찌 보면 당연한 현대기술의 발전 경로를 관찰하면서, 엘릴은 인간의 판단이 별다른 중요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한

다. 기술선택의 기준은 효율성이고 기술은 언제나 다른 기술과 결합되도록 되어 있다. 물론 효율성을 계산하고 기술결합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기준과 흐름을 통제하지는 못한다. 기술발전의 흐름 앞에 인간의 자율성은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둘째, 현대기술이 엄청난 규모로 확장됨에 따라, 한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기술의 발전 과정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거나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누군가 특정 기술의 개발을 멈추려 해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상당한 수의 과학자, 공학자가 합의를 한다 해도 기술의 발전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학자들이 특정 연구를 일시 중단하기로 하는 모라토리엄 시도들이 무위로 돌아간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셋째, 더 나아가 현대인은 기술의 발전을 통제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그런 통제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자조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기술발전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놀랍게도 널리 퍼져 있다. 이들에게는 이런 이야기 자체가 지극히 비현실적이고도 허망한 이야기로 들릴 뿐이다. 엘릴은 이것이 바로 기술(발전)이 자율성을 갖게 되는 기술사회의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이렇게 간단한 설명 외에도, ‘기술 결정론’ 과의 비교를 통해 엘릴의 ‘기술의 자율성’ 주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기술의 자율성 개념과 흔히 혼동되는 기술 결정론은 두 가지 형태로 주장된다. 하나는 기술이 일방적으로 사회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이 언제나 정해진 경로를 따라 발전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예로는 말의 안장에 오를 때 발 디딤판이 되는 등자의 발명이 중세 봉건제의 원인이었다고 보는 기술사학자 린 화이트의 주장이 자주 인용된다. 후자는 앞으로 기술 발전이 나아가갈 방향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는 견해다.

이러한 생각은 기술의 자율성을 주장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기술이 자율적이라는 주장의 핵심은 사회변화의 주 원인이 기술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사회 변화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고, 기술이 유일한 원인이 된다고 볼 필요도 없다. 또, 효율성이 추구된다 해서 기술의 발전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다. 무엇을 효율성 계산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떤 효율성의 원칙이 세워지든, 인간이 그 원칙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기술발전을 시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기술철학자 위너가 말한 것처럼, 기술이 자율적이라는 주장은 인간의 자율성이 훼손되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이러한 엘월의 생각은 다분히 비판적인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는 기술사회에서 인간의 자율성이 거의 상실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남아있는 자유란 “인간이 기술사회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유”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기술의 자율성을 극복하고 인간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자율성을 상실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하이데거, 닐 등도 현대기술 강하게 비판

현대기술사회에 대한 엘월의 비판론적 태도는 상당히 많은 학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그의 존재철학의 맥락에서 현대기술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부품으로 취급받게 만들었다고 한탄한다. 즉, 현대기술사회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존재자들이 부품처럼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자연 지배에 대한 욕망과 기계로부터 비롯된 현대기술 사회에서는 사람은 인적 자원, 울창한 숲은 신문을 만드는 자원이거나 관광자원, 넓은 밭은 곡식 창고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누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도, 거대한 현대기술 시스템하에서는 모든 존재자가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부품으로 취급받게 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이것은 과거의 기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양상이다. 전통적인 기술은 세상 만물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드러냈다. 라인 강에 걸쳐진 작은 나무다리는 그 전까지는 아무 의미도 없던 강과 강 건너의 세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만들었지만, 같은 강 위에 세워진 수력 댐은 강물을 에너지의 자원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하이데

거는 이 문제를 극복할 단서를 시와 예술에서 찾으려 했다.

마셜 맥루한을 이은 미국의 대표적 미디어 사회학자 닐 포스트먼도 현대기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현대사회를 ‘테크노폴리’라 규정하는데, 이는 “과학과 기술의 원리와 작동이 인간과 사회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닌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포스트먼은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 기술이 과연 무슨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개발되는지,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지, 그 개발로 인해 큰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입는 이들이 누구인지, 그 기술은 또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의 조언을 따른다면 많은 기술들의 개발을 정당화하기 힘들어질 것이고, 숙고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서 기술발전은 한없이 더디어질 것이다. 포스트먼은 그것이 현재의 테크노폴리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인간다움은 기술만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인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기술비판론자나 심지어 기술혐오론자로 불리는 것이 근거 없는 매도는 아니다. 비판은 매우 강하게 했지만 대안은 별로 구체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음 글에서 살펴볼 학자들, 즉 이들의 뒤를 이어 등장한 기술철학자들은 보다 긍정적이고 대안 있는 기술비판을 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비판적 태도가 그들을 배척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 우리와 동시대를 살았고, 우리보다 결코 미련하지 않았던 학자들이 왜 현대기술의 발전과 그 결과를 그렇게 우려했을까. 그렇게 비판적이었다면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비판론을 외쳤을까? 엘월과 하이데거, 포스트먼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긍정적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비판론이다. 비판적 사고가 전제되지 않은, 무조건적인 ‘긍정적 사고’는 재앙의 씨앗일 뿐이다. ㉔



글쓰이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루벤대학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